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서관 나주에서 날아보자

성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나주로

2015년 7월 21일 화요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나주살이를 위해 서울에서 나주로 이사한 날이기 때문이다. 작은 승용차에 이불을 비롯한 침구 세트, 밥그릇을 비롯한 주방용품 몇 가지와 입을 옷을 챙겨 신고 오후에 출발했다. 다음날 오전부터 내려오는 도서관 짐을 받기 위해 선발대로 출발한 것이다. 10대까지 고향에서, 스무 살이 되면서 청운을 꿈을 안고 상경 후 결혼하여 한 가정을 꾸린지 25년이 훌쩍 지난 시기에 가족들을 서울에 두고 혼자 내려가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2003년 6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기본방향과 국회보고, 이전기관 노조와의 대화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는데, 우리 연구원은 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문을 통해 공개된 이전계획(안)에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보도 2개월 만에 전남지역 이전기관으로 분류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후 광주와 전남은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합의하였고, 장성, 담양, 나주에서 혁신도시 유치신청을 하여 이전기관 초청 현장설명회와 유치계획을 공개 경쟁한 결과 최종적으로 2005년 11월 30일 전라남도 나주 금천면 일대 현재 부지로 이전이 결정되었다.

2

반지하에서 탈출하여 1층 가장 좋은 곳으로 자리 잡아

홍릉청사 도서관은 반지하에 위치하여 습도조절과 환기에 매우 취약하였다. 소장하는 도서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 이전사업에서 가장 신경을 쓴 사항이 도서관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공간구성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 청사이전 총책임자가 부원

장이었는데,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은 인물이라 이를 관찰시키기 위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나주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기관 중에서는 유일한 Think Tank 라는 점과, 도서관은 단일 기구로서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차별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설득하였다. 청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적의 위치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행히 도서관 담당자가 청사이전추진단 업무와 겸임하면서 청사이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청사이전대책위원 중 40대 중 후반의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새롭게 뜨는 도서관(네이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눈높이를 많이 올렸더니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도서관 편이 되어주었다. 그 결과 현재 연구원 1층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여 이전 후 직원들이 가장 부러워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홍릉청사 도서관



홍릉청사 열람공간



나주청사 도서관



나주청사 열람공간

3

지역에서의 성공적
정책과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한
노력 경주

이전 준비하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전 2개월 전인 2015년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신규임용 젊은 박사들, 가족들과 함께 이전한 직원들, 많은 미혼의 직원들 등 연구원내 다양한 사람들과 면대 면으로 만나 도서관에서 계획하는 서비스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총 3개 부문 11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했다. 기본 방향은 도서관은 첫째 열린 소통과 문화교류의 중심, 둘째 창의적인 연구지원의 중심, 셋째, 지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설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가운데 즉시 가능한 것들은 연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 할 사항은 이를 근거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장에게 기본 방침을 확정 보고하였다.

구분	세부내용	비고
열린 소통 · 문화 교류	1) 저자와의 만남 개최 - 다양한 분야의 인문·사회분야 저자 초청 (2016년 1회, 2017~2019년 4회) - 문학가(김용택, 정호승, 김영하 등), 글쓰기 전문가(김정선, 강원국, 백승권 등), 인문학자(고미숙, 이익주 등), 기타(윤선현(정리), 김태훈(공유경제) 등)	- 서울로부터 원거리 위치로 인한 문화적 욕구 충족 필요 - 도서관에 대한 관심 제고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
	2) 수요 다큐상영회 진행 (멀티미디어실) - 지구, 자연, 환경, 숲 등 다양한 분야 - EBS 다큐프라임 등	-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이용해 상영 - 다큐멘터리DVD를 구입하여 상영 - 2018년 12월까지 상영 후 종료(점심시간 참여율 저조, 개인 여가 선호)
	3) e-book 서비스 확대 - 교양도서 중심의 전자책 구매 - 매년 100권 내외 구입	- 주말귀경, 출장 등 장거리 이동시 활용성 강화 - 적극적 이용 안내를 통한 이용 확대 (휴가철 안내 등)
창의적 연구 지원	4) 원내 구독DB 이용 장소 단일화	- 블룸버그, 로이터 전용단말기 도서관 이전 - 국회협정 PC 등 도서관 설치
	5) 전자도서관 이중화(원내이용자용, 외부이용자용)	- 외부 공개불허인 시장보고서, OECD 자료 등을 원내 이용자용 홈페이지에서 제공
	7) 전자도서관시스템 업그레이드, 메타검색시스템, 통합학술정보검색시스템 도입	- 검색결과의 신뢰도와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
	8) 적극적 정보원 이용안내	- 도서관활용 브로슈어 자체제작 · FAQ 중심 내용 (A4 1장) · 도서관 안내데스크 비치
지역 · 유관 기관 협력	9) 혁신도시 농업관련기관 자료공유 및 발간물 성과확산	- 농어촌공사, aT,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 채널: 각 기관 자료실
	10) 전남 광주 지역 도서관협력체 구성	- 나주공공도서관 - 전남대 목포대 등과의 상호이용협력 체결(2015년)
	11) 대전 및 세종사무소 연구지원을 위한 협력망 확충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협력망 가입 ·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이용, 상호대차 이용 등

이전 후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팀 입지 강화

2014년부터 부서가 기획조정실에서 전문직 담당자들로 구성된 창의정보실(현 대외협력정보실)로 독립하면서 출판 업무를 함께 맡게 되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출판 업무는 옆에서 바라보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팀 명칭도 자료출판팀으로 정하고 출판담당 위촉직원 1명과 함께 전체 업무를 익히고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출판 업무는 과거 독립된 실로 존재했던 업무로 일의 양과 책임이 무척 컸다. 과거에 비해 출판 업무 중요성이 낮아진 상태라 인식전환이 필요했다. 팀 업무의 기본 방향을 출판은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도서관은 데이터를 통한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로 설정하고 이 두 업무를 연구 성과 확산으로 연결한다면 연구원 내에서 중요한 업무부서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했다. 거기에 출판업무와 연구윤리 업무를 결합하고, 수요자 맞춤형 배부업무를 위한 고객관리, 연구 성과물을 기록물의 범위로 넣어서 기록관리 업무까지 포괄하면 많은 인력을 보강하지 않더라도 각 업무간 협력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5년 이전 이후 도서관 이외 업무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구분	주요 활동	실적 및 효과
출판업무	1) 인쇄품질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기틀 마련 - 인쇄업체 평가 및 배분체계 정립 - 인쇄품질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 등록인쇄업체 평가 및 선정업무 일원화(계약부서 → 출판담당부서) - 인쇄품질 평가를 통한 공정한 배분 - 보고서 발간 매뉴얼 매년 갱신 및 업체와 공유 - 인쇄업체간담회(연2회)를 통한 품질관리 기준 공유
	2) 교정/교열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인재 포함한 교열전문가 풀(pool) 구축 - 교열자간담회(연1회)를 통한 교열기준 공유
	3)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모든 발간물 최종 가제본 자료출판팀 검수 후 납품 - 부서 발주 발간물 자료출판팀에 통보, 미준수시 페널티 부여
학술지 발간	4) 연구재단 등재지 유지	- 2017년 학술지 등재 평가 90점 이상 획득(농업경제학분야 I/F 1위)
	5)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체계 구축	- 농촌경제 운영지침 개정 및 연구윤리지침 전면 개정 - 논문 투고관리시스템 도입 및 DOI 부여 - 투고자와 동일 소속 심사자 배제 - 논문 심사자에 편집위원 1명 필수 배정(편집위원회에서 깊게 논의하기 위해)
	6) 영문학술지(JRD;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부활	-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 영문학술지 복간(2016년 12월부터 연1회 영문특별호 발간)
성과확산/ 발간물 관리 체계화	7) 연구발간물 재고부담 해소를 위해 POD 시스템 구축	- 연구원 발간물 재고 소진시에도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쇄보고서 제공(농촌진흥청 협력, 2019)
	8) 온라인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	- 연구 성과물 국내외 확산을 위한 IR 구축(국립중앙도서관 OAK 사업 참여, 2018) - 연구자별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연구자페이지 구축(국회 지식클라우드사업 참여, 2019)

업무구분	주요 활동	실적 및 효과
	9) 연구성과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공저작물 관리 기준 마련	- 공공저작물 운영지침 제정 - 홈페이지 연구 성과물 공공누리 유형 설정 - 연구원내 저작권 관리 업무 수행 및 외부대응
연구윤리	10) 연구윤리 종합계획 수립 관리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연간교육시스템 운영 - 연구윤리 기관평가 대응
	11)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원내 가이드라인 운영	- 연구보고서 최종 검수시 연구윤리 점검 - 연구윤리 평가결과와 주요 위반사례 정리·공유 - Help Desk 운영
기록관리	12) 기록관리 업무 범위설정 및 계획 수립	- 기록물 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2018) - 주요업무범위 및 추진계획 수립(2019) - 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관, 폐기 실행(2020)

이전하기 전에는 낯선 곳으로 가는 막연한 불안감과 달라지는 환경에서의 근무 부담이 무척 컸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 원내 구성원들과의 갈등으로 무척 힘들기도 했다. 이전 후에도 이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전 후 팀 내 소통과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였고, 업무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들의 칭찬과 외부 방문자들의 반응이 아주 호의적이었고, 우리 업무에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상처는 치유되고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었다. 또, 경영진들에게 도서관업무와 출판업무(학술지 발간 업무 포함)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고 실적을 증명하게 되어 팀원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다고 자평한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연구기관 도서관 및 출판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학술정보망, 농업관련분야 업무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추진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협력과 연대의 길에 한국농촌경제연구 자료출판팀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